

세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고전”

소비감소로 코스트 상승분 반영 못해 ... 수익회복 위해 M&A 필요

비누 및 세제 원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제시장이 박약한 마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Soap & Detergents Association에 따르면, 과거 몇년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누 및 세제 가격은 동반상승하지 않았고 2004년에도 원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비누 및 세제 생산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비누와 세제 생산기업들은 수요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으나 2004년에도 별다른 시장회복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성장이 아니라 시장 안정화만을 기대하고 있다.

BASF는 2003년이 힘든 시기였고 2004년에는 소폭의 성장을 기대하나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과 함께 마진 압박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04년에도 활발한 구매가 발생하지 않아 몇몇 공급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Dow Chemical은 2004년에는 계면활성제 사업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에틸렌을 포함한 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제제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가격 인상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P&G는 지방산 화학제품의 공급과잉에 주목하고 한동안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G는 과거 몇년 동안 천연원료 코스트가 상승했으나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판매가격은 오히려 인하했다.

Akzo Nobel은 계면활성제 시장의 구조조정이 단행됐으나 Ethoxylate 및 이온활성 계면활성제에만 집중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합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ognis는 2004년 천연원료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산과 글리세린은 바닥에서 벗어났고 재고가 없으며 경제상황이 개선돼 공급원료의 가격하락보다는 고객들의 구매가 발생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19>